

## 역사소설의 대가 료타로의 인간에 대한 고찰

# 일본어

한은미 | 번역가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작가는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이다. 그의 책 《료마가 간다》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고, 그 밖에 번역 소개된 《미야모토 무사시》와 《항우와 유방》 등 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역사를 재조명한 인물전이 소개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그는 '역사소설의 대가' 또는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만큼 영웅적인 국민작가다. 2000년도에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지난 천 년 간 최고의 정치지도자'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그가 당당하게 1위에 올랐다. 정치가도 아닌 문인(文人)이 정치지도자로 뽑혔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일본인들에게 미친 정치적 영향과 일본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는 작품을 통해 국가, 종교,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학문적 견해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소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일본인의 원형을 제시해 주어 그들의 잃었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인물들을 그의 소설 속에 등장시켜 현대식 해석으로 재구성하여 역사소설의 새 장을 개척해 낸 점도 빠뜨릴 수 없다. 그리하여 그가 그려낸 역사 속의 인물은 그대로 일본인의 영웅이 됨과 동시에 그의 역사관은 그대로 일본인의 역사관으로 정착되어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가 역사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한 트럭분의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는 많은 찬사와 동시에 국수주의적인 태도와 남성우월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우익적인 정치성향이 결코 달가울 리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역사소설이 많이 읽히고 각광받는 이유는, 한 인물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철저한 고증에 근거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미를 가미시킨, 그만이 지닌 독특한 작가적 역량 때문이 아닐까.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발췌한 글들을 '인간이란 무엇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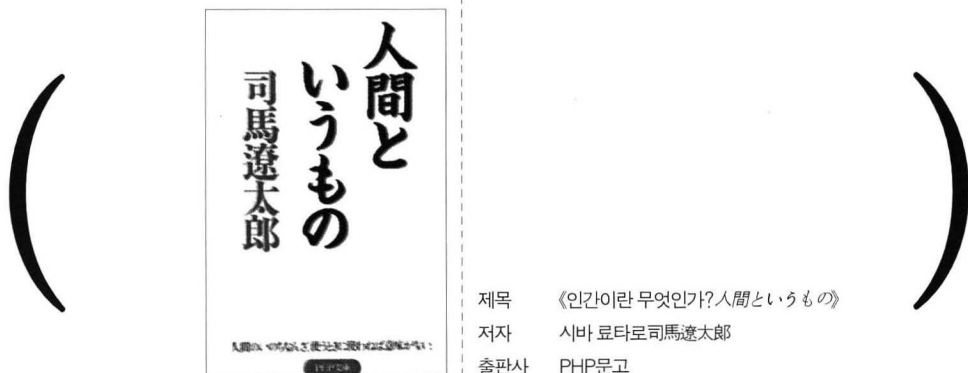
가?'라는 테마를 따라 정리한 아포리즘 모음집이다. 테마별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조직에서 사회로' '꿈과 삶의 보람' '일본인과 일본인' '등신대(等身大)의 영웅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인간'에 대한 고찰을 정리한 것이다. 무려 58권의 그의 저서 중에서 인용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한 권의 책으로 그의 사상 전반을 엿볼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관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몇몇 문장들로 끝맺을까 한다.

“사람의 운명은 90퍼센트가 자신을 모르는 죄(罪)에 의한 것이다.” 《료마가 간다6》

“일이란 그런 것이지. 선인(先人)들 흉내를 내는 것은 탐탁치 않아. 석가나 공자도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야.” 《료마가 간다6》

“인간의 인생은 짧아. 그런 만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영터리로 하면서 바닥을 기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갈고 닦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언덕 위》 ㉔



제목 《인간이란 무엇인가?人間と いうもの》  
 저자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출판사 PHP문고

# 국가는 왜 교육을 독점하는가

# 영어

이지현 | 번역가

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학교를 왜 가야 하고,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그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교육을 습득하였는지에 대해서 잠시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교육제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왜, 무엇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혼란스럽다면, 지금 소개할 이 책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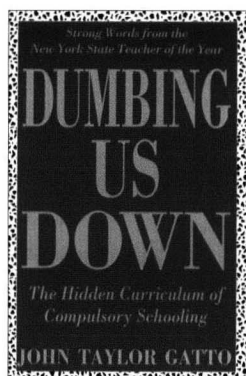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학교》의 저자 존 테일러 가토는 30년 넘는 시간을 교단에서 보낸 베테랑 교사이다. 그는 십여 년 전 뉴욕시와 뉴욕주를 통틀어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었는데, 그때 그가 수상 연설문으로 썼던 글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널리 읽혀지게 됐다. 그리고 결국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지금까지 오랜 기간 고전적인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제도를 거치며 본래의 통찰력과 지혜, 용기, 명석함, 개성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직면하기 두려운 의문에 부딪혔다고 고백한다. “내가 진정 이 아이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고용된 것일까?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자는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에 끈질기게 천착했고, 결국 학교의 존재이유와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커리큘럼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저자가 평생을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하는 그 커리큘럼은 대략 일곱 가지인데, 국경을 초월하여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그 중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것은 ‘지적 의존성’이다.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만, 학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은 남으로부터 주입받는 것이고, 공부는 타인이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지겨운 것이란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의존성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현대인의 전 삶과 사회구조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들은 언제나 타인 혹은 전문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바라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모두 배우는 데는 불과 100여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12년 동안이나 학교라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소에 가둬놓고, 국가가 가르치라고 정한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인간을 권위와 권력에 순종하고, 혼란과 수치화, 기계화와 등급화를 당연시 여기는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사실은 그것이 바로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국가는 다수의 대중을 보다 쉽게 통제, 관리하기 위해 인간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저항의식을 거세해버리는 ‘학교’라는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학교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 번이라도 교육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그 근원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값진 독서경험을 선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에 대한 고민의 부재 속에서 맹목적, 경쟁적으로 교육열에 휩쓸려 가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바로 이끌어 주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닐 수 없다. ☞



제목 Dumbing Us Down? The Hidden Curriculum of Compulsory Schooling  
저자 John Taylor Gatto  
출판사 New Society Publishers

#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여덟 개의 뇌 자극법

# 불어

조정훈 | 번역가

우리는 각자 단 한번 자기 몫의 인생밖에는 살지 못한다. 하늘이 내려준 어쩔 수 없는 섭리다. 그러나 이런 섭리에 대해 사람들은 불평하곤 한다. 하늘은 내게 왜 아름다운 외모를 주지 않았을까, 하늘은 왜 내게 재능을 주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야 할까 등등...

하지만 내가 부러워하는 타인의 삶이라고 해서 타인에게도 자신의 삶이 반드시 만족스런 삶이 될까?

마릴린 먼로는 아름다웠고, 세상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았고, 부와 명예도 거머쥐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이 여인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고, 알코올에 젖어 살다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었다. 헤밍웨이는 살아생전 세상의 찬사와 영예를 함께 누린 행복한(?) 예술가였다.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으며 자신이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삶이 주는 공허감의 무게 앞에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본다면 재능도 명예도, 권력도 개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조건은 못 된다. 굳이 행복의 조건을 따지자면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빠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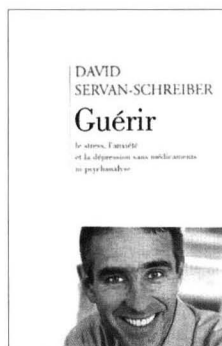
여기 소개하는 책 《Guerir》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책이다. '정신'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면 철학서나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를 다룬 명상집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의 지은이 데이비드 서번 스크레이버 David Servan Schreiber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이다. 그에게 정신이란 인간의 육체의 일부인 뇌와 신경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그에게 행복감이란 것도 인간의 뇌와 신경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 보이는 반응일 뿐이다.

저자는 먼저 인간의 신체기관, 특히 신경과 뇌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뇌 속에는 정서를 관장하는 뇌가 따로 있다. 정서의 뇌는 세포의 조직이나 구조가 다른 뇌와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 가운데서도 가장 진화된 뇌에 속한다. 이 뇌는 인간의 '심리적 행복감'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뿐더러 몸의 생체리듬까지도 조절한다. 정서를 관장

하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인간의 감정작용은 흐트러지며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이 정서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다.

이 정도 설명에서 그쳤다면 이 책은 신경정신의 학의 대중적인 해설서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매우 구체적인 '행복 비법'을 알려준다. 먼저 저자는 임상실험을 통해 정서의 뇌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했다. 그리고 정서의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 우리 몸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여덟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 거기에는 '안구운동을 통한 신경치료 요법'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심장박동 리듬 정상화' '몸을 이용한 체조' 심지어 '침술치료'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망라되어 있다. 모두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이다.

지은이의 연구성과와 치료방법은 신경정신의 학의 새로운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사회적인 성공이나 힘든 정신수양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몇 가지 간단한 동작만으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



제목 《치유 Guerir》  
저자 David Servan Schreiber  
출판사 Broche

## ‘완벽함의 슬픔’ 속으로 끌어당기는 이슬람의 SF소설

최근 국내에 세계 각국의 공상과학(SF)소설이나 추리소설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이 장르는 특히 젊은층 독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 이슬람 세계의 SF소설이나 추리소설이 소개된 적은 없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터키에서 1991년에 초판이 발행된 여성작가 페리한 마덴(Perihan Marden, 1960~)의 《메신저 소년 살인사건》은 당시 터키 젊은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소설이다. 앞으로 살펴보고자 할 소설만큼이나 작가 페리한 마덴의 약력 역시 평범하지 않다. 그녀는 터키의 다양한 명문학교에서 수학을 한 후, 3년 동안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했다. 이 소설에서처럼 그녀의 소설에 동양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녀가 아시아에서 거주했던 이력 때문이다. 작가는, ‘지루한 터에 달리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그녀가 처녀작으로 《메신저 소년 살인사건》이라는 환상으로 가득 찬 공상과학소설을 쓴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버린 도시,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도시, 그 도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메신저 소년들... 그 소년들은 품격 있는 남자들로부터 얻은 정자를 아름답고 지능지수가 높은 금발 여성들의 자궁에 이식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이 미소년들은 사람들과는 격리된 특별한 집에서 감시 속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들을 일주일 세 번, 세 시간만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 소년들은 남을 만지거나, 남이 자신들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며, 항상 소년 같은 외모를 유지하면서 기껏해야 서른 살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유전공학의 산물이다.

한 해에 한두 건의 살인사건도 채 일어나지 않는 이 특수한 도시에서 메신저 소년들이 차례대로 살해되기 시작한다. 무릎 부분에서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밝은 보라색 바탕에 노란 줄이 있는 바지, 동그란 털방울이 달린 하얀 양말, 나비 달린 첼피 신발, 팔목 부분과 칼라 부분에 풀을 먹인 레이스가 달린 셔츠, 보라색 벨벳의 짧은 재킷. 미소년들 모두는 이러한 동일한 의상을 입고 소식을 전달하고

## 터키어

이난아 | 번역가

전달받는 일을 한다. 노란 곱슬머리에 밝은 푸른색 눈, 보조개가 있는 완벽한 ‘창조물들’ 인 것이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소설의 다른 등장인물들도 한번 살펴보자. 롤링 스톤스에 미쳐 있는 중절모를 쓴 남자, 늑대학 전문가이면서 주식투자가인 미스터 늑대학자, 유명한 해양법학자, 메탈 부츠만을 신는 도만야 교수, 건방진 하인 왕유,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늑은 고서점 주인인 자콥.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그는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 잠자고 마시는 것이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괴팍한 탐정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그의 앞에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많은 퍼즐 조각들이 복잡하게 던져진다. 우리의 ‘안티’ 주인공은 이 많은 난관을 헤치고 이 이상한 도시의 살인사건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공상과학소설’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리소설이기도 한 이 작품은 ‘완벽함(여기서는 유전자 공학으로 태어난 소년들)의 슬픔’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국내에 소개된 바가 없는 이슬람 세계의 SF소설과 추리소설의 특징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메신저 소년 살인사건》은 다른 나라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 이슬람 세계의 현대 SF소설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의 국내 소개는 신선한 충격과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제목 《메신저 소년 살인사건 Haberci Çocuk Cinayetleri》  
저자 페리한 마덴  
출판사 에베레스트 출판사